

‘여수만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실무 돌입

61개 과제 단·중·장기로 나눠
부서 지정, 분기별 상황 점검
각 만의 특성 살려 보전·개발
“체감할만큼 속도 있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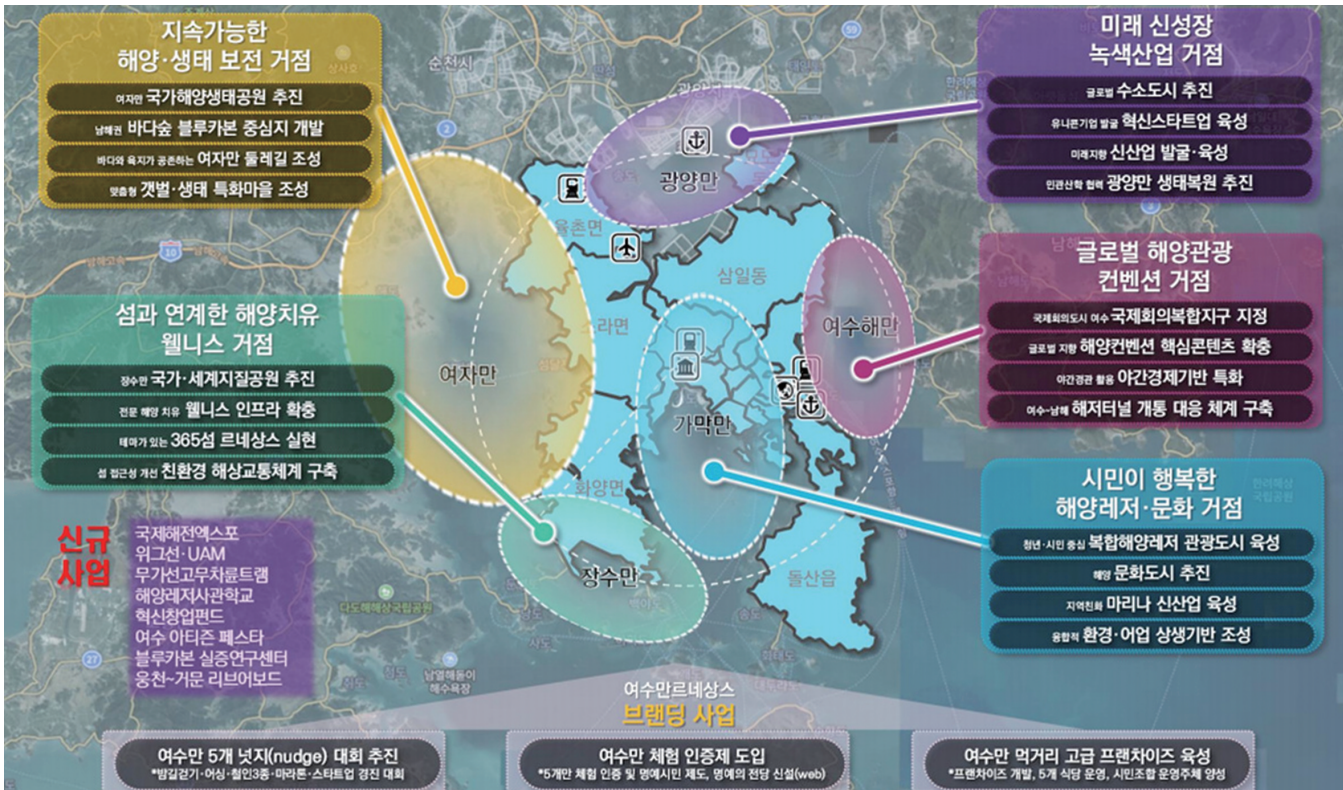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본격 실행을 위한 61개 과제의 실무에 돌입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일부에 집중된 난개발을 막고 여수를 구성한 5개 만 각각의 특성에 맞춰 전체를 균형 있게 개발하는 ‘여수발전 백년대계’의 프로젝트다. ‘섬과 바다가 공존하는 미래 해양도시 여수’라는 비전을 목표로 실행된다.

각 만의 특성을 살려 △지속가능한 해양·생태 보전거점 ‘여자만’ △해양치유 웰니스 거점 ‘장수만’ △해양레저·문화 거점 ‘가막만’ △해양관광과 컨벤션 ‘여수해만’ △미래 신성장 녹색산업 거점 ‘광양만’ 등으로 보전·개발한다.

여자만은 훼손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갯벌, 그리고 다양한 생물이 살아가는 해양 생태의 보고다. 수산 생물의 서식지인 동시에 습지 생태계 유지의 핵심지다.

장수만에는 아름다운 섬들이 보석처럼



여수만르네상스 브랜딩 사업 개요도.

떠 있다. 오는 2026년 여수에서는 세계 최초로 이 섬들을 주제로 한 ‘여수세계섬박람회’가 열린다. 2012여수엑스포를 통해 여수가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이루었듯,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여수가 다

시 한번 크게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막만은 수산업의 전진기지로 오랜 세월 여수의 먹거리를 책임져 왔다. 최근엔 문화와 레저 시설들이 늘어나면서 여수를

대표하는 바다이자 해양·문화·관광을 이끌고 있다.

여수해만은 여수밤바다로 대표되는 여수 관광의 중심지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씩은 다녀갔을 정도의 인기 관광

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정체 우려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새 옷을 입히는 변화가 시도된다.

광양만은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온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다. 세계적인 석유화학단지로서 성장해온 이곳은 조금씩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과 울촌테크밸리, 그리고 수소산업의 메카인 묘도로 이어질 ‘수소도시 프로젝트’를 통해 여수를 에코에너지의 허브이자 수소 거점도시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10개월간의 용역을 통해 61개의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각 과제를 다시 단기와 중기, 장기로 분류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실행에 착수했다. 또한 분기마다 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진행 과정을 시민에게 알릴 방침이다.

정기명 시장은 “여수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뤄내는 것이 여수만 르네상스의 핵심”이라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공공배달앱 ‘떡깨비’ 다화용기 배달 시 5000원 할인

여수시가 배달 음식 일회용품 근절을 위해 공공배달앱 ‘떡깨비’에서 다화용기 선택 시 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에 다화용기를 선택한 소비자에게 3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다화용기 이용을 제고를 위해 오는 8월1일부터는 5000원 할인으로 상향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주문 시 일회용기 대신 고급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긴 음식을 배달받을

수 있다. 식사 후 식기를 반납하면 최대 3시간 이내에 수거하며 추가 수수료 부담이 없다.

이에 시는 다화용기 세척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친환경 세제를 사용해 고온 세척과 살균 후 밀봉하여 가맹점에 배송한다.

참여 가맹점에게는 다화용기를 무상 지원해 일회용품 구입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브이저서브, 광림동 취약계층에 사랑의 쌀 기부

브이저서브(대표 서준상)가 지난 26일 여수시 광림동 주민센터를 찾아 백미(20kg) 40포를 기부했다. (사진)

기부된 쌀은 광림동 복지위기가구 및 사각지대 대상자, 경로당 등에 고루 전달됐다.

서준상 대표는 “자녀가 광림동 소재 학교에 다니고 있어 지역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작지만 많은 분께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 관계자는 “귀한 쌀이 꼭 필요한 곳에



전달될 수 있게 하겠다”며 “변함없는 애정에 보답하여 ‘정 넘치는 광림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여자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여수시는 여자만 갯벌 약 38.81㎢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발농게, 대추귀고둥,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지로, 해양수산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여수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여수부터 순천, 보성, 고흥에 이르는 여자만 갯벌을 하나로 연결된 보호구역으로 광역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민과 사업 부서의 종합적인 의견에 따라 △여촌정주여향(섬달천향, 진목향, 봉전향, 감도향) △여촌 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소명이향) △해상교량과 집라인 설치 지역(진목향·북개도)은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외했다.

시 관계자는 “여자만은 새고막의 산지이자 아름다운 해안과 노을로 생태적·심미적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여수의 소중한 해양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가치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시가 지난 29일 저녁 미평동 여성안심 귀갓길과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여수시 제

‘여성안심 귀갓길’ 민·관·경 합동점검

여수시가 지난 29일 저녁 미평동 여성안심귀갓길과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여성단체, 시청 여성가족·기후생태과, 여수경찰서 등 민·관·경이 참여해 진행되었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미평동 원룸 밀집 지역을 순찰하며 여성안심귀갓길을 환히 밝혀주는 솔라표지병 등 시설물을 점검하는 한편, 미평공원 공중화장실 2개소의 안심 비상벨 작동과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여부 등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의미가 더욱 깊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 여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여성안심지킴이집(47개소) △안심벨(49개) △여성안심콜센터(1899-2012) △여성안심택배함(5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안내도(2개소) △여성안심귀갓길 솔라표지병(6개소)·로고젝터(28개) 사업 등 ‘여성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수산물특화시장, 수산물 사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여수시가 8월3일부터 9일까지 여수수산물특화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체감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책사업으로, 여수시에서는 여수수산물특화시장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환급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로, 소비자

선호도를 고려해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이 70% 이상인 가공식품도 포함한다.

행사 기간은 8월3일부터 9일까지이며, 소비자는 △구매 금액 3만4000원 이상 6만1000원 미만 구매 시 상품권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 상품권 2만원으로 교환 받을 수 있다.

단, 환급은 당일 영수증에 한해 가능하며 간이영수증 지참 시 불가하다. 또한 수

산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중복 할인도 행사 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소는 수산물특화시장 1층 정문에 위치해 있으며,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는 질 좋은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상인들은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일석이조의 행사”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